

2024-08

경제 브리프

2024. 8. 27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24.2분기 국내 경제는 22.4분기(전기비 -0.5%) 이후 6분기만에 처음 역성장(24.1분기 1.3% → 2분기 -0.2%)

- 24.7월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 신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관련 지표들의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

[거시경제 주요이슈]

● 연구소는 하반기 국내 경제 전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가지 주요이슈(미국 경기침체, 국내 수출, 국내 내수부진)를 점검(상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① 미국 고용발 경기침체 가능성 진단

- 최근 고용지표 악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견조한 최종수요와 기업실적, 완화적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고용발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② 하반기 국내 수출 전망

- 하반기에도 국내 수출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겠으나 전체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중국의 경기 둔화로 증가세는 상반기 대비 완만할 것으로 예상

③ 국내 내수부진에 대한 평가

- 고물가·고금리,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구축효과, PF부실 문제 등 그동안 국내 내수부진을 야기한 요인들이 하반기에도 빠르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24년 국내 경제 전망]

● 2분기 GDP 실적(전기비 -0.2%)이 기존 예측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당초 예상대로 하반기 완만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구소는 24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4.5월 2.5%) 수준에서 유지(23년 1.4% 대비 개선)

- 3분기 이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설비투자가 기저효과(2분기 역성장)로 반등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입 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되면서 전기비 0.5% 내외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작성자: 경영전략연구실 허문종 센터장(02-2173-0568)
허지수 책임연구원(02-2173-0556)
김재훈 인턴(02-2173-0566)

목 차

* 연구소는 한국은행이 이전 분기 GDP 속보치를 발표(1, 4, 7, 10월)한 이후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연구소 자체 경제전망모형(WQPM) 추정결과 등을 종합하여 당해 분기와 연간 경제전망을 점검하고 수정 결과를 발표

I. 최근 국내 경제 동향	1
II. 거시경제 주요이슈	2
① 미국 고용발 경기침체 가능성 진단	2
② 하반기 국내 수출 전망	4
③ 국내 내수부진에 대한 평가	5
III.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7
[붙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12

I. 최근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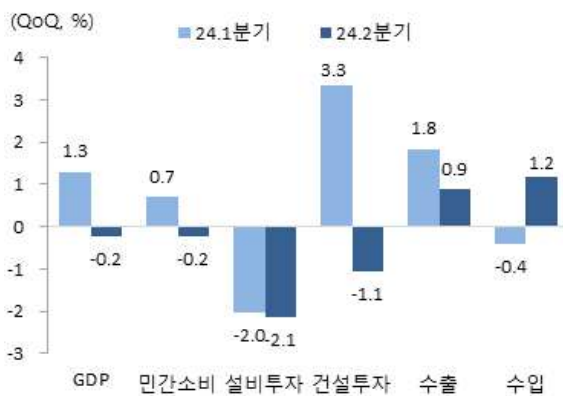
■ 24.2분기 국내 경제는 22.4분기(전기비 -0.5%) 이후 6분기만에 처음 역성장(24.1분기 1.3% → 2분기 -0.2%)

- * 전년동기비로는 2.3% 성장하여 상반기 성장률이 2.8%(22년 상반기 3.2% 이후 최고치)를 기록
- 민간소비(0.7% → -0.2%)와 건설투자(3.3% → -1.1%)는 1분기 일시적 개선요인이 사라지며 각각 재화소비와 건물(주거용)·토목 건설 감소로 하락 전환
- 수출(1.8% → 0.9%) 증가폭은 축소된 반면, 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0.4% → 1.2%)이 크게 늘어 순수출 기여도(-0.1%p)가 소폭 마이너스 전환

■ 24.7월 들어 국내 경제는 수출 신장세가 지속되는 반면,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관련 지표들의 회복세가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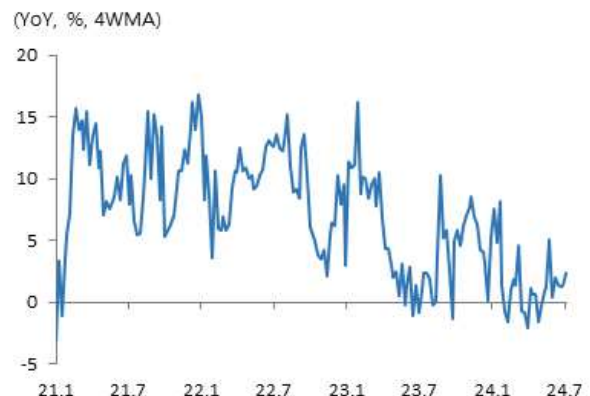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7월 전년동월비 2.6%)은 4개월째 2%대를 유지하면서도 기저효과 등에 따른 석유류 가격(22.10월 이후 최고) 반등 영향으로 소폭 확대
 - * 통관수출(전년동월비, %): 24.4월 13.6 → 5월 11.5 → 6월 5.1 → 7월 13.9
 - * 소비자심리지수: 24.5월 98.4 → 6월 100.9 → 7월 103.6 → 8월 100.8
 - * 자동차 내수 판매량(전년동월비, %): 4월 -5.5 → 5월 -7.1 → 6월 -15.2 → 7월 -2.7
 -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24.4월 2.9% → 5월 2.7% → 6월 2.4% → 7월 2.6%

GDP 지출항목별 성장률



자료: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3분기중 국내 GDP는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겠으나 기저효과(2분기 0.2% 역성장)로 내수지표가 반등하며 전기비 0.6%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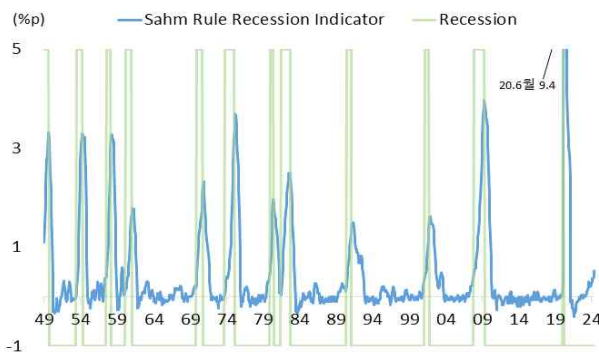
II. 거시경제 주요이슈

① 미국 고용발 경기침체 가능성 진단

■ 미국 7월 실업률이 빠르게 상승(6월 4.1% → 7월 4.3%)한 가운데, 경기진단 척도로 알려진 Sahm Rule이 발동되며 미국 경기침체 가능성이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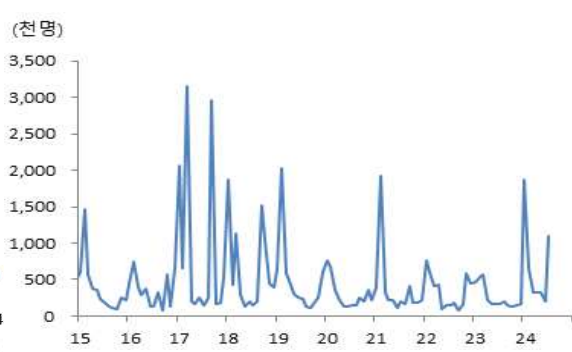
- Sahm Rule은 최근 3개월 실업률 평균값이 지난 12개월 중 최저치보다 0.5%p 이상 높으면 경기침체로 판단(실제로 미국 5~7월 실업률 오름세가 동 기준에 부합)
 - * 실업률의 움직임을 통해 경기침체의 시작점을 알아내기 위해 Claudia Sahm 前 연준 이코노미스트가 고안한 모형(2019년)으로, 50년 이후 발생한 미국 경기침체 중 1번(59년)을 제외한 11번의 침체를 맞히는 등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 특히, 코로나 위기 이후 금융지표(예: 수익률 곡선) 기반의 경기침체모형의 예측력이 낮아짐에 따라 고용지표 기반인 Sahm Rule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고조

Sahm Rule 지표 및 미국 경기침체 시기



자료: FRED,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기상악화로 인한 일시적 실직자(전산업)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최근 미국 고용지표 둔화가 향후 경기침체로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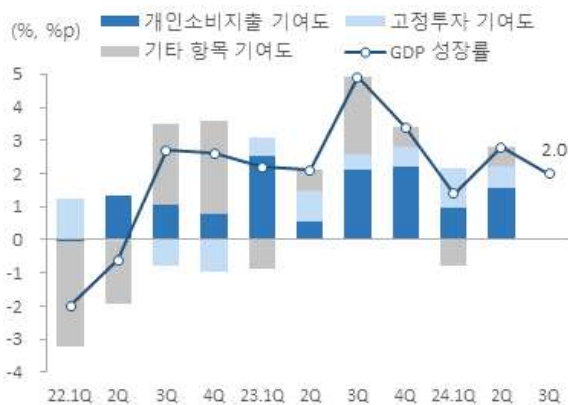
- 일부에서는 최근 미국의 실업률 상승이 근본적으로는 노동수요 둔화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고용 부진으로 가계 소득과 지출 감소가 심화되면 노동수요가 빠르게 줄고 결국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
 - * 1960~80년대 경기침체기에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 해고를 선행한 사례와 같이, 이번에도 급격하게 늘어난 일시적 해고가 영구적 해고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
 - * 7월 미취업자 31.4만명 중 일시적 해고는 24.9만명으로 79.3%를 차지
- 반면, 상당수 IB들은 최근 실업률 상승이 노동수요 감소보다 노동공급 확대에 주로 기인하며, 기상악화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실직자가 급증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Sahm Rule이 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

- * 취업 상태나 날씨 때문에 일을 하지 못했다는 인원이 6월 5.9만명에서 7월 43.6만명으로 급증
- * 모건스탠리는 7월 실업률 상승분(전월비 0.2%p) 중에서 구직자 증가가 0.17%p를 차지한다고 분석. Claudia Sahm 前 연준 이코노미스트도 실업률 상승이 노동수요 감소가 아니라 노동공급 증가에 기인할 경우 Sahm Rule이 경기침체를 시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언급

■ **건조한 최종수요와 기업실적, 완화적 금융여건을 감안할 때 대규모 해고를 동반한 고용발 경기침체가 단기간에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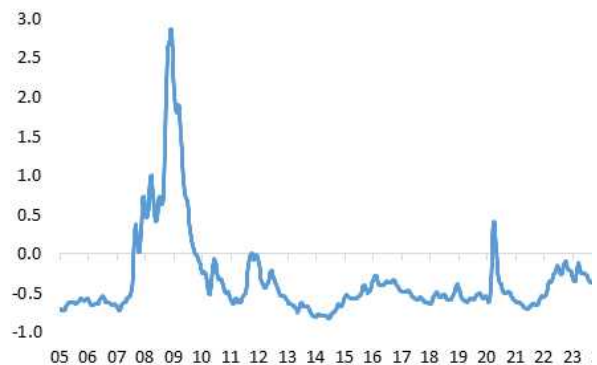
-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초과저축이 고갈되면서 소비심리가 올해 2분기 이후 약화되고 있으나, 소매판매·서비스업황 등 실물지표는 양호하여 고용 둔화에 따른 소비 급감 우려는 제한적
 - * 24.2분기 GDP 성장률이 2.8%(전기비 연율)로 1분기(1.4%) 대비 크게 개선된 가운데, 개인소비지출의 기여도(1.57%p)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성장을 주도
 - * 7월 소매판매(전월비 +1.0%)는 자동차(+3.6%)를 중심으로 1년반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 고용 둔화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가 완화
 - * ISM 서비스업지수: 24.4월 49.4 → 5월 53.8 → 6월 48.8 → 7월 51.4
- 제조업황 약화(ISM 제조업지수 46.8)와 생산 감소(7월 산업생산 전월비 -0.6%)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기업이익을 감안할 때 투자 급감을 동반한 대규모 감원 가능성은 낮게 평가
 - * 블룸버그는 올해 2분기 실적시즌에 S&P500 기업 이익이 전년동기비 12% 증가하고 실적을 발표한 기업의 80% 이상이 예상치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
 - * 올해 2분기 GDP에서 기업 설비투자(+11.6%)가 크게 늘어 성장의 20%를 기여
 - * 24.6월 JOLT 해고율(0.9%), 실업수당 청구건수(8월 3주차 23.2만건) 등 관련 지표들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기업들의 급격한 노동수요 위축 징후는 제한적

미국 소비, 투자의 GDP 성장기여도



주: 24.3분기는 NowCast의 전망치(8.16일 기준)
 자료: BEA, 애틀란타 연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국 Financial Condition Index



자료: FRED,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② 하반기 국내 수출 전망

■ 올 1~7월 중 국내 수출호조는 주요국의 양호한 경기와 주력 품목 수요 증가에 기인

- (교역상대국 경기) 최대 수출처인 미국(건조한 소비)과 중국(경기부양책)의 수요가 큰 폭 개선
 - * 1~7월 지역별 수출(23년→24년, 전년동월비, %): 미국 -0.7 → 16.8, 중국 -25.8 → 6.9, ASEAN -21.1 → 9.4, 일본 -10.6 → 3.7, EU 3.9 → -4.6
- (주력 품목 수요) 미국·중국 등에서 AI서버 수요(반도체)가 증가하고, 아세안에서 신흥국 경기회복에 따라 연료 수요(석유제품)가 확대되며, 미국·중남미·중동에서 인프라 수요(일반기계)가 오름세
 - * 1~7월 품목별 수출(23년→24년, 전년동월비, %): 반도체 -37.2 → 52.7, 자동차 43.6 → 3.9, 석유화학 -23.5 → 6.1, 석유제품 -23.6 → 9.2, 일반기계 2.3 → 1.4

■ 하반기 수출 여건은 대체로 양호하겠으나, 증가세는 상반기보다 다소 둔화될 전망

- 7월 글로벌 제조업 PMI는 기준선(50)을 소폭 하회하였으며, OECD 경기선행지수(G20 기준) 역시 23.11월 이후 점진적으로 하락
- 하반기에 유로존의 성장세는 견조하게 유지되겠으나, 국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경기침체에 직면하지 않더라도 고용·실물 지표 둔화로 하반기 GDP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임
 - * 對미 중간재 수출과 美소비·투자와의 상관계수(00~24년 vs. 21~24년): 민간소비 0.37 vs. 0.71, 민간투자 0.58 vs. 0.85(BOK 경제전망, 24.8월)
 - 중국은 제조업 PMI가 3개월 연속 기준선을 하회하고, 부동산시장 위축 장기화로 투자도 부진

글로벌 제조업 PMI·경기선행지수



자료: CEIC, OECD,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국 GDP 성장률 전망(24.7월 기준)

단위	2024				2023	2024F
	1Q	2Q	3Q	4Q		
미국	전기대비 연율, %	1.4	2.8	1.4	1.4	2.5
유로존	전기대비 연율, %	1.2	1.2	1.2	1.3	0.4
중국	전년동기대비, %	5.3	4.7	4.7	4.7	5.2
일본	전기대비 연율, %	-2.3	3.1	2.6	1.2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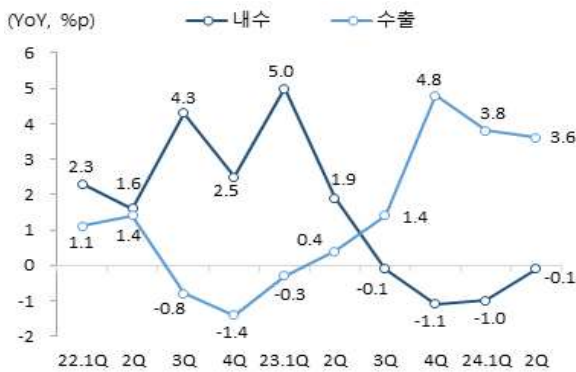
자료: 글로벌 IB,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③ 국내 내수부진에 대한 평가

■ 국내 경제는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가 23.2분기 플러스로 돌아선 이후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으나, 내수는 23.3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유지

-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각각 22년 중반, 23년 중반 이후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기성은 올해 3월 이후 부진한 흐름

내수와 수출의 분기별 GDP 성장기여도



자료: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매판매, 설비투자, 건설기성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국내 내수부진에는 경기순환적·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

- (고물가·고금리)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고물가·고금리의 부정적 영향이 빠르게 해소되지 못하면서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소비 부진이 지속
- (청년층 인구 감소) 최근 고용이 소득이 줄어드는 50대 이상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반면, 인구 감소 영향으로 핵심소비계층인 15~49세의 고용이 부진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

* 24.7월 연령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5~29세 -14.8, 30~49세 1.9, 50세이상 29.9

가계 명목소득, 실질소득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국내 신용카드 이용금액(연령별)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수출·내수간 낙수효과 제약)** 수출 호조에 따른 기업이익 개선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투자 속도조절, 대외투자 확대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 회복이 지연
 - 기업들이 후공정 중심의 AI용 고성능 반도체(HBM) 투자에 집중하면서 전공정에 필요한 범용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을 축소
 - 최근 경기 개선세가 반도체 등 일부 수출 중심의 IT산업에 국한되면서 경제 전반에 확산되지 못하는 양상
 - * KDI에 따르면 자동차·선박 등과 달리 반도체 산업은 중간재를 다루는 국내 기업 비중이 낮아 수출이 늘어도 국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가 제한적으로 발생(10억원 투입에 대한 취업자 증가: 전산업 평균 10.1명, 반도체 2.1명)하는 것으로 조사
 - 미·중간 기술분쟁으로 2020년 이후 반도체·전기차·배터리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대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국내 투자는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로 작용
- **(고용창출력 높은 건설업 부진)** 팬데믹 이후 급격하게 높아진 건설사들의 금융비용과 건설자재가격 부담, PF부실 확대, 23~24년중 수주 감소 등이 건설투자 감소를 야기
 -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21년 9.2 → 22년 10.0 → 23년 -18.5 → 24.1~6월 -0.1
 - * 올해 5~7월중 취업자 증가세(전년동월비)는 평균 11.5만명으로 1~4월 평균(28.6만명) 대비 크게 둔화되었으며, 대표적 내수 업종인 건설업(7월 -8.1만명), 도소매(-6.3만명)의 부진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 하반기에도 국내 내수부진을 야기한 요인들이 빠르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그간 가파른 상승으로 절대적인 물가수준 자체가 높아졌고, 주택시장 과열 등으로 한은이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여 소비 회복세를 제약
 - * 이창용 한은 총재는 8.22일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내수는 회복 흐름을 재개했지만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평가하고, 한은이 금리를 내리더라도 내수 측면에서 단기간에 소비가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
- 향후 재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등 IT기업들의 신규 설비투자가 늘어날 여지가 있으나, 해외투자 확대가 국내투자를 구축하는 양상은 이어질 전망
- 높아진 금융·원자재가격 부담이 빠르게 낮아지기 어렵고, PF부실 문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건설투자는 당분간 감소세가 불가피

III. 2024년 국내 경제 전망

- 2분기 GDP 실적(전기비 -0.2%)이 기존 예측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당초 예상대로 하반기 완만한 성장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연구소는 24년 국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24.5월 2.5%) 수준에서 유지

* 주요기관의 24년 한국 GDP 성장률 전망치 수정(4~5월 → 7~8월, %): 한국은행(2.5 → 2.4), IMF(2.3 → 2.5), KDI(2.6 → 2.5), IB 평균(2.5 → 2.5), 연구소(2.5 → 2.5)

- 연간 전체로 국내 경제는 소비, 투자 등 내수의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반도체 등 IT부문을 중심으로 수출 개선세가 뚜렷해지면서 GDP 성장률이 23년 1.4%에서 24년 2.5%로 높아질 전망

[분기별 성장흐름]

- 3분기 이후 국내 경제는 민간소비·설비투자가 기저효과(2분기 역성장)로 반등하고 수출 증가세 둔화와 수입 증가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축소되면서 전기비 0.5% 내외의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전기비, %): 24.1분기 0.7 → 2분기 -0.2 → 3분기F 0.6 → 4분기F 0.5

* 설비투자: 24.1분기 -2.0 → 2분기 -2.1 → 3분기F 3.8 → 4분기F 3.6

* 건설투자: 24.1분기 3.3 → 2분기 -1.1 → 3분기F -0.8 → 4분기F -3.0

* 수출(재화·서비스): 24.1분기 1.8 → 2분기 0.9 → 3분기F 0.9 → 4분기F 2.6

* 수입(재화·서비스): 24.1분기 -0.4 → 2분기 1.2 → 3분기F 2.0 → 4분기F 1.6



자료: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한국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출항목별 연간 성장률]

① [민간소비] 고물가로 실질소득 회복세가 부진하고 고금리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이 지속되며 증가폭이 축소(23년 1.8% → 24년 1.3%)

- * 취업자 전망(전년동기비, 만명): 24.1분기 29 → 2분기 15 → 3분기F 14 → 4분기F 13
- * 소비자심리지수(기말): 22년 95.7 → 23년 97.4 → 24.1월 101.6 → 8월 100.8
- * 가계신용(전기비, 조원): 23.3분기 17.1 → 4분기 7.0 → 24.1분기 -3.1 → 2분기 13.8
- * 실질소득(전년동기비, %): 23.2분기 -3.9 → 3분기 0.3 → 4분기 0.5 → 24.1분기 -1.6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② [설비투자] 수출 회복세에 따른 기업들의 수익성 개선에도 반도체 관련 투자 지연,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투자 구축효과 등으로 부진(23년 1.1% → 24년 0.2%)

- * 반도체제조용기계 투자(전년동기비, %): 23.4분기 -23.2 → 24.1분기 4.4 → 2분기 -21.4
- * 국내기계수주(전년동기비, %): 23.3분기 -14.6 → 4분기 13.8 → 24.1분기 3.0 → 2분기 -2.5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③ **[건설투자]** 지방의 주택경기 부진, 부동산 PF 부실 영향 지속, 건설사들의 높아진 비용(금융·원자재·인건비) 부담, 최근 1~2년간 수주·착공물량 급감 영향으로 감소로 전환(23년 1.5% → 24년 -0.6%)

- * 전국 미분양 주택은 24.6월 기준 7.4만호로 최근 저점(21.9월 1.4만호) 대비 5.3배 많은 수준이며, 악성 미분양인 준공후 미분양도 1.5만호(전년동월비 +58%)로 빠른 속도로 확대
- * 건설수주(전년동기비, %): 22년 10.0 → 23년 -18.5 → 24.1분기 -15.6 → 2분기 15.5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 매매거래량



자료: 국토부, KB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전국 미분양(전체, 준공후) 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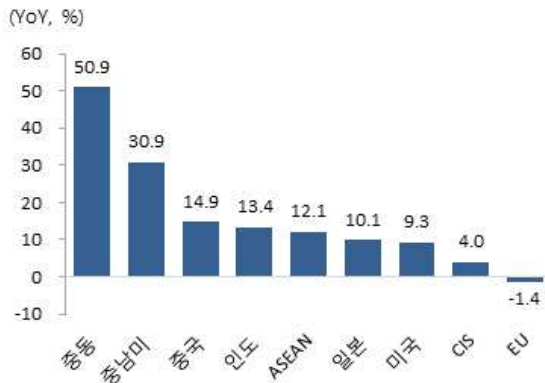


자료: 국토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④ **[수출(재화·서비스)]** 미국·중국·아세안·인도 등 주요 교역 대상국에 대해 IT제품·석유류·자동차 등 대다수 주력품목이 호조세를 보이고, 해외 관광객도 회복되며 증가폭이 확대(23년 3.6% → 24년 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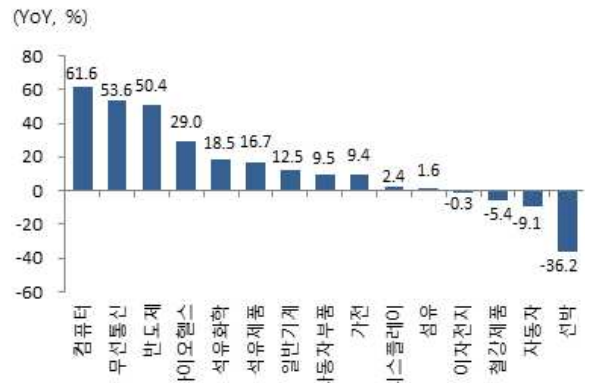
- * 대미수출액(전년동월비, %): 24.4월 24.3 → 5월 15.6 → 6월 14.8 → 7월 9.3
- * 대중수출액(전년동월비, %): 24.4월 10.0 → 5월 7.5 → 6월 1.8 → 7월 14.9
- * 외국인관광객수(월평균, 만명): 19년 146 → 24.1분기 113 → 24.2분기 143(19년 대비 97.9%)

24.7월 지역별 통관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4.7월 품목별 통관수출 증가율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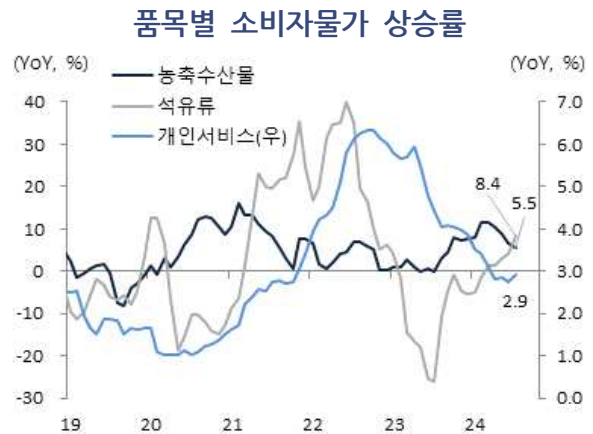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수요 위축, 외식 등 개인서비스 물가 강세 완화로 상승폭이 축소(23년 3.6% → 24년 2.5%)

- 다만, 폭염 등 기상여건 악화로 농산물 가격 부담이 커지고, 석유류가 전년도 기저효과 영향으로 오름세(전년동월비)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승률은 연중 한은의 목표수준(2%)을 상회

* 24.7월 품목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CPI 2.6, 농축수산물 5.5, 전기·수도·가스 1.0, 석유류 8.4, 가공식품 2.0, 외식 2.9, 외식 외 3.0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취업자는 양호한 서비스업 고용 여건,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겠으나, 도소매·건설 등 내수 관련 업종의 부진으로 증가폭은 축소(23년 33만명 → 24년 18만명)

* 24.7월 부문별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전체 17.1, 제조 -1.1, 건설 -8.1, 서비스 28.9(보건·사회·복지 11.7, 숙박·음식 3.4, 정보통신 8.2, 전문·과학 3.6, 예술·스포츠 2.5, 운수 6.5, 도소매 -6.3, 부동산 -2.6)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경상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에 따른 서비스수지 적자에도, 수출 호조와 수입 감소에 의한 상품수지 흑자, 순대외자산 증가에 따른 소득수지(배당·이자) 증가로 흑자폭이 크게 확대(23년 355억 달러 → 24년 783억 달러)

- * 상품수지(억달러): 23.3분기 171 → 4분기 203 → 24.1분기 189 → 2분기 253
- * 서비스수지(억달러): 23.3분기 -73 → 4분기 -60 → 24.1분기 -69 → 2분기 -46
- * 해외출국자수(만명): 24.3월 214.2 → 4월 211.1 → 5월 226.8 → 6월 221.9
- * 중국인 관광객 수(월평균, 만명): 19년 50 → 24.1분기 34 → 24.2분기 40(19년 대비 80%)
- * 순대외금융자산(억달러, 기말): 20년 4,872 → 21년 6,853 → 22년 8,005 → 23년 8,103 → 24.1분기 8,310

국내 주요 거시지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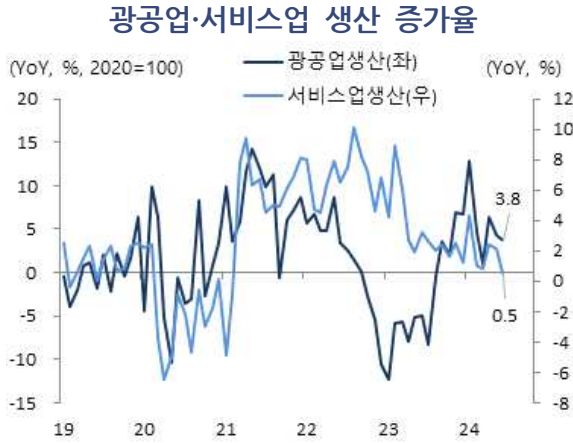
	단위	2022	2023	2024F	2023				2024F			
					1/4	2/4	3/4	4/4	1/4	2/4	3/4	4/4
GDP(실질)	전기대비, %	2.7	1.4	2.5	0.4	0.6	0.8	0.5	1.3	-0.2	0.6	0.4
	전년동기대비, %				1.1	1.0	1.4	2.1	3.3	2.3	2.3	2.0
민간소비	전기대비, %	4.2	1.8	1.3	0.5	-0.3	0.1	0.4	0.7	-0.2	0.6	0.5
	전년동기대비, %				4.7	1.4	0.3	0.7	1.0	0.9	1.5	1.5
설비투자	전기대비, %	-0.3	1.1	0.2	-1.4	0.4	-2.0	2.8	-2.0	-2.1	3.8	3.6
	전년동기대비, %				4.7	3.8	-3.9	-0.2	-1.0	-3.4	2.5	3.0
건설투자	전기대비, %	-3.5	1.5	-0.6	0.6	0.2	1.9	-3.8	3.3	-1.1	-0.8	-3.0
	전년동기대비, %				1.7	1.7	4.3	-1.2	1.6	0.2	-2.1	-1.8
수출(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3.9	3.6	7.9	4.2	1.1	1.9	3.9	1.8	0.9	0.9	2.6
	전년동기대비, %				-1.1	0.9	3.2	11.4	9.1	8.7	7.5	6.4
수입(재화, 서비스)	전기대비, %	4.2	3.5	2.8	3.9	-1.8	0.3	1.6	-0.4	1.2	2.0	1.6
	전년동기대비, %				7.1	3.4	-0.2	3.9	-0.4	2.7	4.5	4.3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	6.1	-7.5	10.7	-12.8	-12.0	-9.7	5.7	8.1	10.1	12.0	12.3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	18.9	-12.1	0.7	-2.2	-13.2	-21.6	-10.7	-11.1	-1.4	7.5	9.2
재정수지 ¹⁾	조원	-70.4	-13.1	-44.4	-	-	-	-	-	-	-	-
	GDP대비, %	-3.3	-0.6	-1.9	-	-	-	-	-	-	-	-
경상수지	억달러	258	355	783	-60	71	156	187	168	166	205	221
	GDP대비, %	1.5	2.1	4.4	-	-	-	-	-	-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5.1	3.6	2.5	4.6	3.3	3.1	3.4	3.0	2.7	2.4	2.2
실업률(SA)	%	2.9	2.7	2.8	2.7	2.6	2.6	2.9	2.8	2.8	2.6	3.0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82	33	18	40	35	26	30	29	15	14	13
전국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1.83	-4.64	0.24	-2.90	-1.60	-0.18	-0.02	-0.30	-0.19	0.18	0.55

주: 1) 통합재정수지는 기획재정부 추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관세청, 통계청,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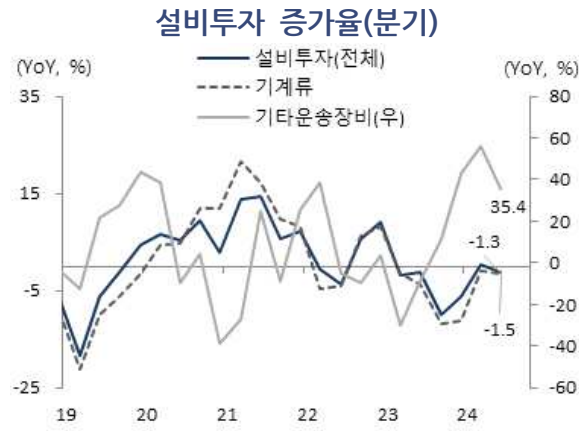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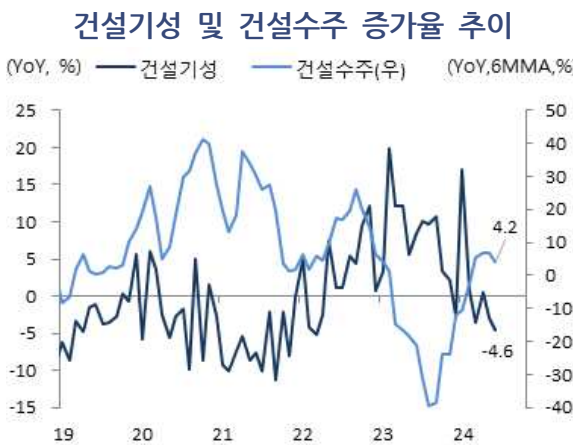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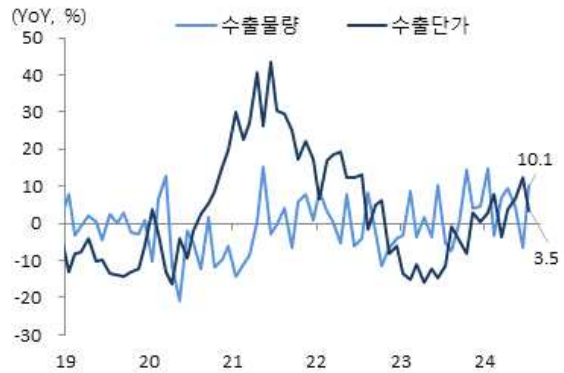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출입 증가율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수출 물량과 단가



자료: 관세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소비자물가 상승률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실업률과 취업자 증감



자료: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및 거래량



자료: 통계청, 국토교통부,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지역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자료: 국민은행,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주요 거시경제 지표 추이

항목	단위	연간			분기별					월별					
		2021	2022	2023	23.2/4	3/4	4/4	24.1/4	2/4	24.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광공업 생산	전기대비, %	-	-	-	2.7	1.3	2.2	-0.3	1.2	-3.1	2.6	-0.6	0.5	-	-
	전년동기대비, %	8.2	1.4	-2.7	-6.0	-1.9	5.2	5.9	4.8	1.0	6.4	4.3	3.8	-	-
제조업 가동률	기간평균, %	74.6	74.5	71.9	72.0	72.3	72.5	72.7	73.6	71.4	73.8	73.0	73.9	-	-
	재고/출하 비율	97.1	108.3	115.1	116.8	116.6	110.5	111.1	108.4	111.3	109.8	110.5	104.7	-	-
서비스업 생산	전기대비, %	-	-	-	0.0	1.0	0.4	0.7	-0.3	-1.2	0.8	-0.8	0.2	-	-
	전년동기대비, %	5.0	6.9	3.2	2.6	2.3	1.8	2.0	1.6	0.9	2.4	2.1	0.5	-	-
소매판매	전기대비, %	-	-	-	-0.4	-1.9	0.4	-0.5	-0.7	1.1	-0.6	-0.2	1.0	-	-
	전년동기대비, %	5.8	-0.3	-1.5	-0.7	-2.7	-1.9	-2.0	-2.9	-3.4	-2.0	-2.9	-3.6	-	-
설비투자	전기대비, %	-	-	-	1.5	-2.0	5.1	-3.8	0.1	-5.6	1.6	-3.6	4.3	-	-
	전년동기대비, %	10.2	2.5	-4.9	-1.3	-10.0	-6.0	0.3	-1.3	-4.3	0.4	-1.5	-2.7	-	-
건설기성	전기대비, %	-	-	-	1.1	1.1	-2.5	4.9	-5.6	-10.2	4.9	-4.4	-0.3	-	-
	전년동기대비, %	-6.7	2.8	7.3	8.7	10.1	0.6	4.1	-2.4	-3.5	0.6	-3.0	-4.6	-	-
건설수주(경상)	전년동기대비, %	9.2	10.0	-18.5	-31.4	-44.8	22.7	-15.6	15.5	11.3	51.2	-19.1	25.9	-	-
수출(통관)	전년동기대비, %	25.7	6.1	-7.5	-12.0	-9.7	5.7	8.1	10.1	3.1	13.6	11.5	5.6	13.9	-
수입(통관)	전년동기대비, %	31.5	18.9	-12.1	-13.2	-21.6	-10.7	-11.0	-1.4	-12.3	5.4	-2.0	-7.5	10.5	-
무역수지	억달러	293	-478	-103	-35	64	96	86	146	43	14	49	83	36	-
경상수지	억달러	852	258	355	71	156	187	168	209	69	-3	89	123	-	-
소비자물가	전년동기대비, %	2.5	5.1	3.6	3.3	3.1	3.4	3.0	2.7	3.1	2.9	2.7	2.4	2.6	-
근원물가	전년동기대비, %	1.4	3.6	3.4	3.7	3.2	2.9	2.5	2.2	2.4	2.3	2.2	2.2	2.2	-
취업자 증감	전년동기대비, 만명	36.9	81.6	32.7	34.6	26.3	30.3	29.4	14.5	17.3	26.1	8.0	9.5	17.1	-
실업률(SA)	%	3.6	2.9	2.7	2.6	2.6	2.8	2.8	2.8	2.8	2.8	2.8	2.8	2.5	-
소비자심리지수	기간평균, 지수	103.5	95.7	97.4	98.0	102.2	98.4	101.4	100.0	100.7	100.7	98.4	100.9	103.6	100.8
기업경기실사지수	기간평균, 지수	91.9	81.0	69.3	72.0	69.0	69.7	70.7	75.0	71.0	73.0	74.0	78.0	73.0	71.0
주택매매가격	전기말대비, %	14.97	-1.83	-4.64	-1.60	-0.18	-0.02	-0.30	-0.19	-0.11	-0.03	-0.08	-0.07	0.02	-
주택매매거래량	월평균, 만호	8.5	4.2	4.6	5.2	5.0	4.4	4.6	5.7	5.3	5.8	5.7	5.6	-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실물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실물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